스카이데일리
SkyeDaily
제1615호
skyedaily.com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단기 4358년 음력 5월 29일 甲子
구독·배달문의 02-522-6595

세계 경제 벙커버스터 터졌다… '시계 제로'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대재앙
오일 쇼크 위기 재연될 가능성
유가 요동… WTI·브렌트유 껑충
中, 이란산 원유 소비 90% 차지
'세계의 공장' 스톱 대란 우려
중동 원유 70% 의존 韓도 비상
7개월치 비축, 수급 긴밀 점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포격하자 국제 유가가 요동쳤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대규모 관통 폭탄)으로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을 폭격한 22일(현지 시간) 이란 의회는 중동 석유 수송의 중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 해상 운송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경제에 오일 쇼크를 일으킬 악재다. 〈관련기사 2·9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소식에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3일 7시30분(한국 시간) 기준으로 3.36% 오른 배럴당 76.32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도 3.27% 오른 79.49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미국의 연말 물가 상승률이 6%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중국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산 수출 원유 가운데 약 90%를 소비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산유국이지만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공장이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수입 원유 가운데 71%나 중동에서 가져온다. 중동산 석유는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에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석유 비축분은 약 7개월치라고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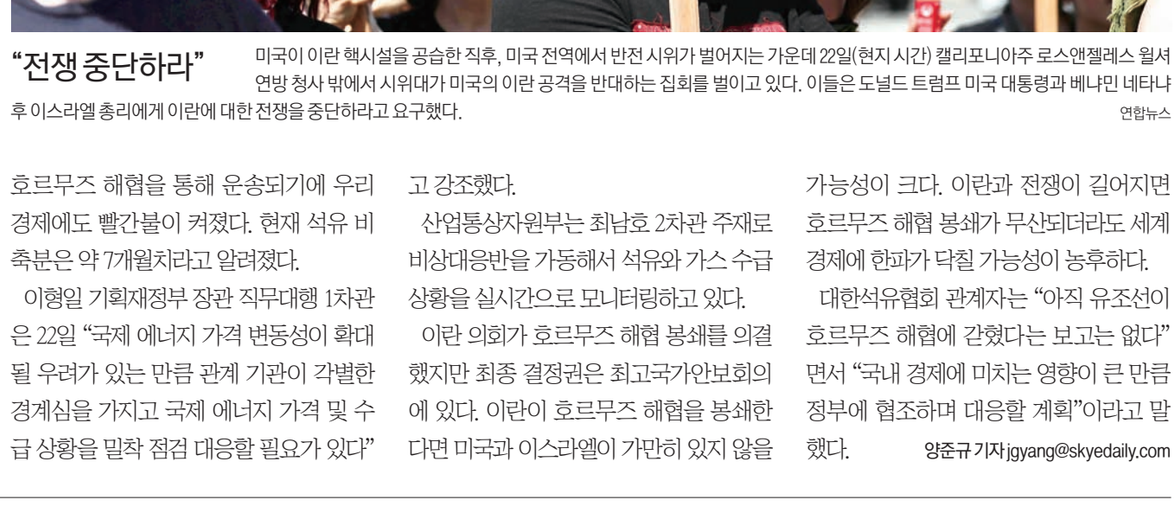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2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반을 가동해서 석유와 가스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에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과 전쟁이 길어지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무산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한파가 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아직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다는 보고는 없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에 협조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전쟁 중단하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직후, 미국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22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윌셔 연방 청사 밖에서 시위대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北이 다음 타깃 될 수도… 트럼프 '작심경고'

불법 핵개발에 협상 대신 응징
압도적 힘으로 심장 정밀 타격
파괴 통한 거부 전략으로 선회

21일(현지 시간)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밀 공습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Operation Midnight Hammer)'를 감행했다. 이번 작전에는 9·11 테러 이후 최대 규모로 B2 스텔스 폭격기와 최신 무기 체계가 투입됐으며 미국은 이란 핵 능력의 결정적 저하를 목표로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기지를 집중 타격했다.

23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미국은 19일 이란에 2주간의 최후통첩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불과 이틀 만에 핵심 시설을 공습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으며 외교적 해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한 결과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공격이 외교적 실패 뒤 선택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22일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였으며 핵심 전술은 기만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20일 밤 B2 폭격기 편대가 미주리주에서 출격해 일부는 태평양으로, 주력은 대서양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했다. 서쪽 편대는 미끼였고 실제 타격 편대는 18시간 동안 통신을 최소화하며 접근했다.

폭격기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의 포르도 등 깊은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이 시설은 약 90m 두께 암석으로 보호돼 기존 공격으로는 공략이 어려웠다. 미국은 이를 위해 최대 60m 관통이 가능한 GBU-57 벙커버스터를 개발했고 이번 작전은 B2 폭격기와 GBU-57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평가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핵심 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곳을 타격했다. 특히 포르도는 지하 80~100m 깊이에 위치한 '지하 요새'로 핵무기 개발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미국은 이 시설에 약 13.6t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MOP)'를 투하해 깊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2009년 개발된 GBU-57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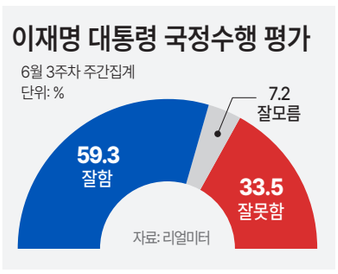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은 미군 잠수함에서 발사된 30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했으며 미군은 모든 항공기와 함정이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작전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성공했다"고 강조했으나, 이란은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란 핵시설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벙커버스터 폭탄에 대해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지하80~90m 깊이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벙커버스터는 오직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투하할 수 있는데, 무게가 약 13.6t으로 한 번에 2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깊은 지하 시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관통력은 약 60m에 이른다"며 "연쇄적으로 동일 지점에 타격을 가해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 동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9면에 계속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국정수행 잘한다
李 지지율 59.3%
일주일 전보다 0.7%p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9.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0.7%p 상승한 59.3%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7%p 낮아진 33.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5.8%p로 오차범위 밖이다.

특히 주 초반에 G7 정상회의 등 외교활동, 코스피 3000 돌파, 2차 추경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주 후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2차 추경 등 포퓰리즘 논란,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우려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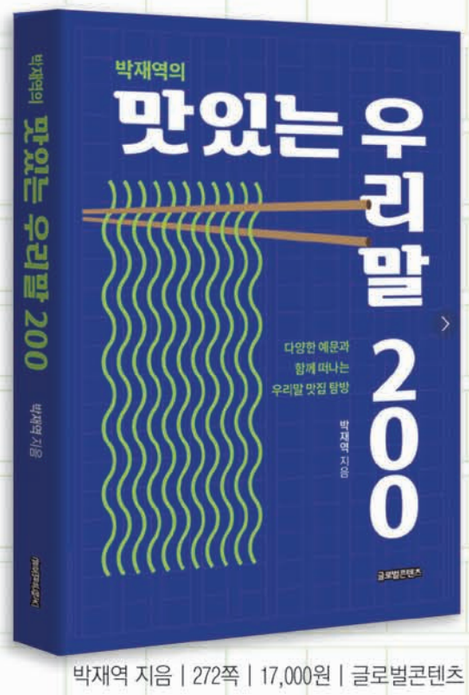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3.1%p 상승한 78.9%, 부산·울산·경남 7.3%p 상승한 55.7%, 대구·경북 1.5%p 상승한 49.2%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7.3%p 하락한 53.9%, 서울 1.6%p 하락한 54.8%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2%p 상승한 70.2%, 70대 이상 1.3%p 상승한 51.8%, 20대 6.8%p 상승한 49.6%, 60대 5.3%p 하락한 51.9%를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1.5%p 하락한 48.4%, 국민의힘은 1.0%p 상승한 31.4%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박재역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

맛있는 우리말 200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